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3, 549 - 561

## 한국판 단축형 혐오민감성 척도(K-DS-R) 타당화 연구<sup>†</sup>

이 신 애      김 지 혜      현 명 호<sup>‡</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혐오 정서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Haidt 등(1994)이 개발하여 Olatunji 등(2007)이 개정한 27문항의 혐오감 척도(The Disgust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그 심리 측정적 속성을 검토하였다. 참여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9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번안한 혐오민감성 척도, 불안 민감성, 상태-특성 불안, 강박 증상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혐오 민감성 척도는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86$ )가 높았다.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내적 일치도가 낮은 2문항과 문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8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의 단축형 한국판 혐오민감성 척도를 제안하였고, 이 척도는 원척도와 같은 3요인 구성을 보였다(설명변량 40.7%).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유의하게 혐오 민감성이 높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혐오민감성 점수는 불안 민감성, 상태-특질 불안, 강박 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준거관련 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혐오감, 혐오민감성, 타당화, 예비연구

<sup>†</sup>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혐오감(Disgust)은 인간의 기본 정서로서 (Ekman, 1992), 오염이나 질병 가능성이 있는 자극으로부터 유기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지, 행동, 생리적 측면의 회피 반응을 수반한다(Woody & Teachman, 2000). 혐오정서는 다른 기본 정서에 비해 지난 수년 동안 연구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Phillips, Senior, Fahy, & David, 1998). 그러나 1990년대 이래 혐오정서는 몇몇 불안장애의 발생과 지속을 근원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주목받으면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혐오감의 초기 정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1차적으로 음식에 대한 극도의 불쾌한(Revolt) 경험을 거부하는 미각을 중심으로 하며, 2차적으로는 후각, 촉각, 시각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방어적 정서로 간주되었다(Darwin, 1872, 1965). 하지만 혐오감은 범문화적 기본정서인 동시에 개인, 문화 간의 다양한 발달 경로를 따라 학습되고, 그 결과 혐오를 느끼는 대상과 강도에 대하여 혐오민감성(disgust sensitivity)의 개인차가 발생한다(Haidt, McCauley, & Rozin 1994, 1997). 최근에는 미각 중심의 계통 발생적인 기원을 넘어서 (1)나쁜 맛에 대한 '미각 혐오', (2)동물, 신체 분비물에 대한 '핵심 혐오', (3)사체, 위생, 성 등에 대한 '동물-자연 혐오', (4)낯설거나 병든 사람의 직, 간접적인 접촉에 대한 '대인간 혐오', (5)도덕적으로 위반되는 것에 대한 '사회-도덕적 혐오'순으로 순차적이면서 동시에 발달(Haidt et al., 1994)하여 그 정의가 영적 측면의 보호(Protection the soul)까지 확대되었다.

혐오감을 다양한 유인가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Rozin, Haidt, McCauley, Dunlop과 Ashmore(1999)은 자

기보고와 행동회피 반응으로 혐오감 유발하는 9가지 영역으로 음식, 신체 부위, 동물, 성적 행동, 사체나 상처 접촉, 폭력으로 인한 상해, 비위생적인 것, 대인간 오염, 도덕적 위반을 제시하였다. Haidt 등(1994)은 나쁜 맛, 핵심 혐오, 동물-자연, 대인간 혐오, 사회 도덕적 혐오 유인가의 4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Olatunji 등(2007)이 혐오 민감성척도를 개정하면서 핵심, 동물-상기, 오염 혐오감의 3요인으로 그 의견이 수렴되었다.

혐오감은 '질병-회피 모델'에 따라 질병으로부터 유기체를 보호하는 적응적 기능을 가지지만 (Oaten, Stevenson, & Case, 2009), 혐오민감성이 지나치게 높아서 특정 자극에 대해 과도한 혐오정서를 경험하면 오히려 심 정서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하여 불안장애 증상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 Jong & Merckel 웬하여, 1998; Olatunji & Sawyer, 2005). 약성 요인인 et al, 증상의 발생과 민감성은 거미공포증, 혈액-주사-손상 공포증, 강박장애, 섭식장애(약key, Buckland, Tantom & Dallos, 1998), 건강염려증(Davey & Bond, 2006), 사회공포증(Mentagne et al., 2006) 등의 유발 및 유지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미 공포증은 신체적 해를 입을 공포보다 오염에 대한 염려가 증상을 더 잘 예측하였고 (Matchett & Davey, 1991), 회피의 정도는 두려움보다 혐오와 상관이 더 높았다(Woody, McLean, & Klassen, 2005). 혈액-주사-손상형 환자는 공포와 관련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공포보다 혐오감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 공포보다 혐오가 기절 증상을 더 잘 설명하였다(De Jong & Merckelbach, 1998, Olatunji et al., 2005). 또한 혐오민감성은 씻기와 확인의 강박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Mancini, Gragnani, & D'Olimpio, 2001), 음식의 선택과 거부에 있어서 혐오감과 섭식장애 증상이 강한 상관이 있었다(Davey et al., 1998). 이는 혐오감의 역할이 공포정서와 독립적으로 공포증의 강도를 증가시킨다(amplifier)는 것으로 공포와 불안을 중심으로 다루었던 불안장애의 전통적 관점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적, 경험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Rachman, 1990).

불안장애의 혐오민감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구성개념을 측정할만한 객관적인 평가도구가 없다. 하지만 임상장면에서 불안장애의 인지행동치료로 노출기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포 감소율보다 혐오 감소율이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다(Smits, Telch, & Randall, 2002; Olatunji et al., 2009). 그동안 불안장애에서 공포의 역할과 다른 혐오의 역할은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불안장애의 재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혐오감을 측정할 도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혐오감의 측정은 유인가에 대한 회피 행동반응, 심박과 피부전도 등의 생리학적 반응, 혐오 특정 안면근육과 안면 표정의 표현 반응, 혐오 정서 중추라고 일관되게 보고되는 섬엽(insula)를 보고하는 뇌영상 연구(Cisler, Olatunji, & Lohr, 2009) 등의 객관적 지표가 있다. 권애란(2007)과 우태제(2005)가 뇌 영상기법을 통해 혐오자극에 대한 뇌 기능, 자율신경계 반응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한 바가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혐오자극에 대한 생리적 측정을 한 것이므로 다양한 혐오 유발 요인에 대한 주관적 반응 경향성을 측정할 것은 아

니다.

혐오 자극에 대한 회피행동은 혐오자극에 대한 주관적 불편감이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혐오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는 Rozin, Fallon, & Mandell(1984)이 고안한 DSQ (disgust sensitivity questionnaire)가 있지만, 이는 미각 중심의 혐오만 측정한다. DSQ를 보완하여 Kleinknecht, Kleinknecht와 Thorndike(1997)가 5가지 유인가에 의한 DES(disgust emotion scale)를 개발하였지만 내적일치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Haidt 등(1994)은 혐오민감성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8가지 유인가에 의한 혐오민감성을 측정하는 혐오감 척도(The Disgust Scale; DS)를 개발하였다. Olatunji 등(2007)은 DS의 요인구조가 불안정한 한계를 보완하여 27문항의 혐오감 척도 개정판(The Disgust Scale-Revised, DS-R)으로 수정하였다. DS는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번안되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관련 변인과의 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DS는 3가지 하위 요인을 가지는데, 핵심 혐오감(Core disgust; 음식, 동물, 신체 분비물 포함), 동물-상기 혐오감(Animal-reminder disgust; 죽음, 신체손상), 오염 혐오감(Contamination disgust; 대인관계를 통해 전염될 것에 대한 염려)으로 구성된다. 동물 공포증, 강박장애의 오염관련 증상은 핵심 혐오감과 관련이 있고, 혈액-주사-손상형 공포증은 동물 상기 혐오감과 관련이 높았다(De Jong & Merckelbach, 1998; Olatunji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혐오감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인 혐오감 척도(Disgust scale)를 번안하여 한국판 혐오감 척도(K-DS)를 개발하고

자 한다. 불안장애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 특히 혐오감을 느끼는 대상과 강도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도 같은 양상을 지니는지 비교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척도의 심리적 속성은 내적 일치도를 보고 불안과 강박증 관련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 수렴 및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성 요인을 검증할 것이다.

## 방 법

### 참여자

서울 소재 대학생과 일반 성인 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편향된 반응을 했거나 중도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17부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참가자는 남성이 86명(39.6%)이고, 여성이 131명(60.4%)이며, 평균 연령은 25.98세(18~58세)이다.

### 측정 도구

**혐오민감성 척도 개정판(Disgust Scale).** Haidt 등(1994)이 혐오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인 DS의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초벌 번역 후 수정, 합의를 통해 1개의 초벌 번역본을 만들었다. 초벌 번역본은 2개 국어 사용자(한국어와 영어)가 역번역 하였으며, 영어에 능통한 자에 의해 원본과 비교 감수되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연구자의 논의를 통해 수정되어, 최종 문항이 확정되

었다. 'bother'는 '괴롭다'로 기술하였고, 'glass eye'는 '의안'으로 번역되었으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사전에 나오는 '인공눈알'을 추가 기술하였다.

DS은 특정 경험이 얼마나 혐오스러웠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8개 유인가에 대한 혐오 민감성 영역을 평가한다: (a) 음식(상한 음식, 문화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음식, 지저분한 음식), (b) 동물(불결하거나 더러운 곳에서 사는 동물), (c) 신체분비물(악취, 배설물, 점액 등을 포함), (d) 신체손상(손상 또는 신체 절단), (e) 죽음(죽음과 시체), (f) 성(문화적으로 일탈된 성행위 포함), (g) 위생(문화적으로 기대된 위생습관에서 벗어남), (h) 공감주술(오염물질과 비슷하거나-똥 모양의 캔디-그 것과 접촉했던 것-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과 같이 전염가능성이 없는 자극 포함).

총 27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2문항은 필터 문항이기 때문에 최종 총합에 반영되는 문항은 25 문항이다. 원 척도는 (1)핵심 혐오감(음식, 동물, 신체 분비물 포함), (2)동물-상기 혐오감(신체손상, 죽음), (3)오염 혐오감(위생, 공감주술)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은 혐오감을 느끼는 정도로 0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개정판 불안 민감성 척도(The expanded anxiety sensitivity index; ASI-R).** Taylor와 Cox(1998)가 불안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불안관련 감각에 대한 두려움, 즉 각성증상에 대한 위협적인 신념을 평정하는 ASI를 김지혜 등(2004)이 표준화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1)호흡 불안 민감성, (2)사회적

불안 민감성, (3)심혈관 불안 민감성, (4)심리적 불안 민감성으로 구성되어있다. 불안 민감성 정도를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950이었다.

**상태-특성불안 질문지(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등 (1970)이 상태-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김청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I는 바로 그 순간 특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는 상태불안(state anxiety)의 20문항과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서적 특성불안(trait anxiety)의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불안 문항은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둔감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비교적 안정성이 있음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그렇다)으로 평정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상태불안의 내적 일치도는 .913, 특질불안은 .898이었다.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bsessive-Compulsive Inventory-Revised).** Foa 등 (1998)이 강박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42문항의 강박증상 목록(OCI)의 단축형인 OCI-R (2002)을 임준석(200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서, 하부 요인은 (1)씻기, (2)강박사고, (3)수집, (4)정돈, (5)확인, (6)중립화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은 불편감 정도를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80이었다.

## 결 과

### K-DS-R의 신뢰도 및 문항 간 상관분석

1차 문항 선별을 위해 필터문항을 제외한 25문항을 분석하고, 문항 간 총합 상관이 .20이하이면서, 문항을 제거하면 내적 일치도가 증가하는 2문항(1원숭이고기, 6바퀴벌레)을 삭제하였다. 최종 23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보통 수준 이상이었으며, 문항-전체 상관은 .29~.60이었다. Hotelling's T 값이 2214.0으로 문항이 골고루 배정되었다,  $F(22,195)=90.14, p<.001$ .

### K-DS-R의 요인분석

K-DS에 포함된 문항의 1차 삭제 후 최종 23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반응의 정상성 검증(Kolmogorov-Smirnov)결과 부적편포의 경향성이 있었으나 전반적 모든 문항이 정상분포에서 .05수준에서 유의하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주성분방식(principle component)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교회전(oblimin rotation)을 실시하였다. 표본적절성 측정치 Kaiser-Meyer-Olkin(KMO)값은 .85으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증 통계치의 유의수준이 .001보다 작아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고유치가 1보다 큰 요인이 6개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55.2%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scree 분석과 원척도의 이론적 내용을 고려하여 3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의 수를 3으로 고정하였다. 3요인의 전체 설명량은 40.7%이고 요인구

조와 요인 부하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25.55%를 설명하였고 내용은 동물 상기를 나타내는 8문항으로 구성(2,5,7,10,14,21,8,11) 되었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8.69%를 설명하였으며 내용은 핵심혐오를 나타내는 10문항으로 구성(15,17,20,22,25,27,19,23,24,26)되었고,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6.47%를 설명하였고 내용은 오염 혐오를 나타내는 5문항(4,9,18,3,1) 째체 었다. 이는 Haidt 등(1994)과 Olatunji 등(2는 전체의 요인구조와 내용로 유사한 요인구조이지만, 23문항 중 8문항은 두 요인 이상에 비슷한 요인 부하량을 가지거나 다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표 1. 한국판 혐오 민감성 척도(K-DS, K-DS-R) 신뢰도 및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요인부하량		
	동물-상기혐오	핵심혐오	오염혐오
2 사람 손이 병 안에 보관된 것을 보는 것과 그 표본이 있는 과학실에 머무는 것은 괴롭다	.594(.633)		
5 묘지를 가로질러 걷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돌아갈 것이다	.576(.603)		
7 시체를 만지는 것은 소름 돋을 정도로 괴로울 것이다	.653(.682)		
10 어떤 사람이 눈에서 의안을 꺼내는 것을 보아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R)	.529(.578)		
14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그 방에서 전에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잠을 이루기 힘들다	.517(.521)		.379
21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 창자가 튀어 나온 것을 본다	.569(.552)		
8 누군가가 구토한 것을 보면 나도 속이 메스껍다	.504		.311
11 공원에서 내 앞으로 쥐가 지나가는 것을 본다면 괴로울 것이다	.553		
15 집 앞 쓰레기통 속에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것을 본다		.350(.455)	
17 철길 아래 터널을 걷고 있는데 소변 냄새가 난다		.700(.771)	
20 누군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케첩을 뿌려 먹는 것을 본다		.658(.671)	
22 친구가 일주일에 한번만 속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729(.720)	
25 우유를 마시는 순간 상한 냄새를 맡는다		.540(.560)	
27 맨발로 도로를 걷고 있는데 지렁이를 밟았다	.374	.413(.473)	
19 친구의 죽은 애완 고양이를 맨 손으로 집어야 한다		.420	
23 친구가 개똥모양의 초콜릿을 주다		.643	
24 실수로 화장한 사람의 잿가루를 만진다		.402	
26 성교육 시간에 입으로 새 콘돔을 부풀려야 한다		.589	
4 결코 공공 화장실 변기에 몸의 어떤 부위도 닿게 하지 않으려 한다			.597(.554)
9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일지라도 요리사가 감기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지 않을 것이다			.717(.740)
18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신 후에 그 잔이 아는 사람이 마셨던 것임을 알게 된다	-.358	.336	.686(.718)
3 누군가의 가래 뱉는 소리를 듣는 것은 괴롭다			.318
13 아무리 배고프고 내가 좋아하는 스프릿지라도 깨끗이 씻었지만 사용했던 파리체로 저었다면 먹지 않을 것이다			.347
고유치	5.88(3.83)	2.00(1.69)	1.50(1.42)
설명변량(%)	25.55(25.54)	8.69(11.27)	6.47(9.44)
Cronbach's alpha	.76(.70)	.81(.72)	.59(.54)

(R)역채점 문항, 요인부하량<.30은 기재하지 않음, ( )안과 굵은 글씨는 K-DS-R의 측정치.

원척도와 다른 요인구조를 보인 8문항은 문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외 하고, 한국판 단축형 혐오민감성 척도(K-DS-R)로 측정하는 것이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이론적 구성과 적합하다. K-DS-R은 동물상기 혐오 6문항, 핵심 혐오 6문항, 오염 혐오 3문항의 총 15문항으로 3요인을 가진다(표1).

**요인간 상관**

K-DS-R의 3요인 간 상관과 원 척도 연구(Olatunji et al., 2007)의 요인간 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2에 따르면, 본 연구 결과는 원 척도의 연구 결과보다는 낮지만 더 적은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상기, 핵심, 오염혐오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K-DS-R의 3요인으로서 적절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한국판 단축형 혐오민감성 척도(K-DS-R) 하위 요인간 상관

요인	동물상기	핵심	오염
동물상기			
핵심	.63(.84)**		
오염	.46(.66)**	.56(.79)**	

( )는 Olatunji 등(2007, N=215), 상관\*\* $p<.01$

**하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성차**

K-DS-R 3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 표3에 제시하였다. 또한 K-DS-R로 측정된 혐오민감성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였다. 선행연구(Olatunji et al., 2007)와 같이 성별의 경우 여성( $M=2.37, SD=.54$ )이 남성( $M=1.94, SD=.54$ )보

다 혐오 민감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F(1,215)=37.37, p<.001$ . 모든 연령대에서 혐오 민감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30,186)=1.12, p=.318$ .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에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면, K-DS-R는 연령대와 혐오민감성의 특성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볼 수 있다.

표 3. 한국판 단축형 혐오민감성 척도(K-DS-R) 하위 요인과 문항 평균, 표준편차 및 성차

	전체 (N=218)	남 (N=86)	여 (N=131)	
동물상기	2.53(.77)	2.17(.70)	2.77(.71)	38.29**
핵심	2.01(.70)	1.73(.65)	2.19(.67)	24.97**
오염	2.12(.68)	1.97(.71)	2.23(.64)	7.62*
총점	2.20(.58)	1.94(.54)	2.37(.54)	33.13**

M(SD), \* $p<.01$ , \*\* $p<.001$

**다른 준거 변인과의 상관**

혐오 민감성 척도(K-DS-R)와 불안민감성(ASI), 상태-특성불안(STAI) 및 강박증상(OCI)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고, 원 척도의 연구 결과(Olatunji et al., 2007)와 비교하였다. 표4에 따르면 본 연구와 원 척도의 연구 결과는 유사하였다. K-DS-R은 하위요인과 총점 모두 심리적 불안민감성을 제외하고 모두 상관이 있었다. 또한 오염혐오감과 특성불안을 제외하고 특성-상태 불안 모두 상관이 있었다. K-DS-R의 총점은 강박증상의 하위요소인 강박사고를 제외하고 Olatunji 등(2007)의 연구보다는 낮지만 상관이 유의하였다. 특히 동물상기 혐오는 씻기, 확인, 중립화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핵심혐오는 씻기, 확인, 중립화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오염혐오는 씻기, 정돈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건대, Haidt 등(1994)의 DS-R을 한국판으로 번안한 결과 내적일치도가 적절하고 비교적 안정된 3요인 구조를 가지고 관련 변인과의 상관도 적절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Haidt 등(1994)의 혐오민감성 척도(DS)를 개정한 Olatunji 등(2007)이 개정한 혐오민감성 척도(K-D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통해 한국판 혐오 민감성 척도가 동일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여 23문항 중 원척도와 다른 요인에 속한 8문항을 문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혐오민감성 척도는 Olatunji 등(2007)의 이론적 분류와 같이 3요인을 따르지만 문화 특수성을 고려하여 15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를 위해 불안과 강박증상 척도와 정적 상관성이 확인되어, DS-R-K가 ‘혐오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임이 검증되었다.

문화 특수성이 고려되어 제외된 문항은 요인별 문항 구성에서 미국판 원척도와 차이를 보였다. 내적일치도가 낮아서 삭제된 1번(원숭이 고

표 4. 혐오 민감성 척도(K-DS-R)와 관련 척도와의 상관

	DS			
	동물상기 혐오	핵심 혐오	오염 혐오	총점
<b>ASI</b>				
호흡 ASI	.32**	.42**	.23**	.44**
사회적 ASI	.26**	.43**	.27**	.41**
심혈관 ASI	.19**	.25**	.18**	.27**
심리적 ASI	.06	.15*	.07	.15*
총점	.29**	.41**	.25**	.43**
<b>STAI</b>				
특성 불안	.21**	.23**	.10	.27**
상태 불안	.17*	.25**	.14*	.26**
총점	.20**	.25**	.13	.28**
<b>OCI</b>				
씻기	.07**(.28**)	.19**(.35**)	.21**(.55**)	.18**(.45**)
강박사고	-.03 (-.03)	.01 (-.11)	-.09 (.03)	.02 (-.07)
수집	.08* (.12)	.12 (.05)	.10 (.15)	.16* (.12)
경돈	.07* (.09)	.11 (.25**)	.17* (.35**)	.15* (.26**)
확인	.13**(.24**)	.15* (.25**)	.11 (.44**)	.18**(.35**)
증립화	.13**(.09)	.20**(.10)	.11 (.36**)	.23**(.19**)
총점	.10**(.19**)	.17* (.20**)	.14* (.44**)	.21**(.30**)

\* $p < .05$ , \*\* $p < .01$  ASI: 불안민감성, OCI: 강박증상, STAI: 상태-특성불안. ( )안은 미국판 원척도(Olatunji et al., 2008) DS-R과 OCI-R의 상관.



기), 6번(바퀴벌레) 문항은 우리나라 문화상 낯설거나 친숙하여 혐오 정서가가 낮은 유인물인 가능성이 있다. ‘핵심혐오’요인에서 23번과 26번은 원 척도에서 ‘오염혐오’ 요인으로 실제 오염 가능성이 없는 사물에 대한 미신적 사고로 인해서 혐오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항은 개똥모양과 콘돔이라는 형태보다는 초콜릿을 먹고 부는 것의 미각 중심적인 혐오감으로 의미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문항 모두 형태와 사용 자체보다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강렬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19번과 24번은 원 척도에서 ‘동물 상기혐오’ 요인으로 죽음, 사체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문항은 죽은 사체를 맨손으로 잡아야 한다는 행위보다 ‘친구’라는 추가적 정서가와 ‘고양이’라는 대상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24번 문항은 화장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재를 특정 장소에 뿌리는 의식적 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혐오 유인가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오염혐오’요인에서 3번은 원 척도에서 신체분비물(몸에서 나는 냄새, 배설물, 점액-콧물)과 관련된 ‘핵심혐오’요인인데, 의미 전달 상 인체에서 분비되는 물질(가래 포함) 그 자체에 초점이 되기보다 행위로 ‘더럽다’고 인식되었을 것이다. 13번은 원 척도에서 음식과 관련된 ‘핵심혐오’요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 전달에 있어서 ‘스프와 파리채’라는 ‘대상’보다 ‘파리채로 짓는다는’ 위생 습관에 위배되는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마술적 사고와 관련된 오염 관련 혐오정서가 야기되었을 수 있다.

혐오민감성 척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척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문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경험적 연구결과에서도 혐오민감성 척도의 요인구조는 문화권에 따라 달랐다. Olatunji 등(2009)이 8개국의 DS척도의 요인구조를 원칙도인 미국의 3요인 모델과 비교한 결과 호주, 브라질, 일본, 독일, 이태리, 스웨덴에서는 3요인이 적합하였지만, 네덜란드는 1요인이 더 적합하였다. 심지어 스웨덴에서 혐오민감성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에서는 혐오 유인가에 해당되는 8요인을 지지하는 결과가 얻어졌다(Björklund & Hursti, 2004). 따라서 K-DS-R의 3요인이 확인되었지만, 아직 그 요인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원칙도와의 모델을 비교하여 요인 구조의 타당도의 정교한 비교검증이 필요하다.

혐오민감성의 측정이 문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은 첫째로 혐오정서를 유발하는 자극과 그 정서를 서술하는 입력과 평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Rozin et al, 1993). 예를 들면 ‘거미’는 서구 문화에서 혐오유인가로 평가되지만 인도차이나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진미로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음식에 필수적인 ‘젓갈’은 서양에서 혐오식품이다. 둘째로 문화나 나라마다 ‘혐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Olatunji et al., 2009). 독일어로 혐오의 어원은 ‘Ekel’로 구토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혐오의 이론적 의미(나쁜 맛)와 유사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의미로는 속어로 ‘grossed out’으로 표현되고, ‘disgust’는 분노, 공포와 그 의미가 혼합된 것으로 사용된다(Olatunji et al., 2009). 본 연구에서도 ‘disgust’를 ‘혐오’로 번역하였지만 유사한 단어인 ‘역겨움’으로 번역되는 것에 따라 그 의미나 의미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혐오민감성의 타당화 준거로 불안과 강박만을 선정했는데, 추후연구에서는 공포 정서도 포함하여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생리적으로 혐오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공포와 불안은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외현적 행동 반응에 있어서 공포, 불안, 혐오 모두 회피반응을 수반하기 때문에 혐오감과 공포, 불안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혐오와 공포, 불안은 불안 장애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Cisler, Olatunji, & Lohr, 2009), 세 정서를 포함하여 척도의 수렴,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보고 뿐 아니라 생리적, 행동적 반응을 포함한 다면적 접근을 하여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혐오정서는 1차적으로 미각 중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하거나 오염될 것 같은 대상에 대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적응적 기능을 가진 기본정서이다. 하지만 그 유인가와 정서 강도는 문화와 발달에 의존한다(Rozin et al., 1993). 따라서 여러 정신장애의 취약성으로 혐오민감성을 측정하고 관련 변인을 찾는 연구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필요하다. 과거에는 주로 불안 장애를 중심으로 혐오감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염려증 등의 혐오 정서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한 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혐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인데, 본 척도와 함께 혐오감과 관련된 많은 정신장애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치료적 측면에서 혐오감은 소거에 저항적이며, 치료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재발에 영향을 준다(Olatunji et al., 2009). 하지만 핵심, 동물상기 혐오감은 대인, 도덕적 혐오감에 비해 시간이 지나

면 머리 속의 이미지가 희미해지고, 체계적 둔감화가 잘 되는 유인가(Rozin, et al., 1999)이다. 개인의 혐오 민감성 내에서 취약한 요인을 파악하여 더 정교한 접근으로 그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신장애와 혐오정서의 관련성, 그 관련기제를 확인하여 치료 장면에서 사용된다면 불안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 아니라 불안 장애로 발달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 후 재발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권애란 (2007). 시청각 자극에 의해 유발된 분노, 혐오, 공포의 뇌 기능의 차이: fMRI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혜, 유범희, 오강섭, 김윤리, 이소영, 임영진 (2004). 한국어 확장판 불안 민감도 지수의 타당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43, 54-61.
- 김청택, 신동균 (1978). STAI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 70-72.
- 우태제 (2005). 동영상 자극에 의해 유발된 혐오와 공포에 따른 자율신경계 반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준석 (2007).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CI-R-K)의 비임상군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Björklund, F. & Hursti, T. J. (2004). A Swedish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the Disgust Scale: A measure of disgust sensitivit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5, 279-284.
- Cisler, J. M., Olatunji, B. O., & Lohr, J. M. (2009). Disgust, fear, and the anxiety disorders: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1), 34-46.

- Darwin, C. (1965).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872).
- Davey, G. C. L., Bickerstaffe, B., MacDonald, B. (2006). Experienced disgust causes a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 causal role for disgust in anxious psychopathology. *Behaviour Research & Therapy, 44*, 1375 - 1384.
- Davey, G. C. L., Buckland, G., Tantow, B., & Dallos, R. (1998). Disgust and eating disorder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6*, 201-211.
- De Jong, P. J., & Merckelbach, H. (1998). Blood-injection-injury phobia and fear of spiders: Domain specific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gust sensi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2), 153-158.
-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6*, 169-200.
- Foa, E. B., Huppert, J. D., Leiberg, S., Langner, R., Kichic, R., Hajcak, G., et al. (2002).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4*, 485-496.
- Foa, E. B., Kozak, M. J., Salkovskis, P., Coles, M. E., & Amir, N. (1998). The validation of a new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cale: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10*, 206 - 214.
- Haidt, J., McCauley, C., & Rozin, P.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disgust: A scale sampling seven domains of disgust elici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5), 701-713.
- Haidt, J., Rozin, P., McCauley, C., & Imada, S. (1997). Body, psyche, and cul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gust and morality.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9*, 107-131.
- Kleinknecht, R. A., Kleinknecht, E. E., & Thorndike, R. M. (1997). The role of disgust and fear in blood and injection-related fainting symptom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12), 1075-1087.
- Mancini, F., Gagnani, A., & D'Olimpio, F.(2001). The connection between disgust and obsessions and compulsions in a non-clinical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1173 - 1180.
- Matchett, G., & Davey, G. C. (1991). A test of a disease-avoidance model of animal phobia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9*, 91-94.
- Montagne, B., Schutters, S., Westenberg, H. G., et al (2006). Reduced sensitivity in the recognition of anger and disgust in social anxiety disorder. *Cognitive Neuropsychiatry, 11*, 389 - 401.
- Oaten, M., Stevenson, R. J., & Case, T. I. (2009). Disgust as a disease-avoidance mechanism. *Psychological Bulletin, 135*(2), 303-321.
- Olatunji, B. O., Lohr, J. M., Sawchuk, C. N., & Westendorf, D. H. (2005). Using facial expressions as CSs and fearsome and disgusting pictures as UCSs: Affective responding and evaluative learning of fear and disgust in blood-injection-injury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9*(5), 539-555.
- Olatunji, B. O., Moretz, M., McKay, D., Bjorklund, F., de Jong, P., Haidt, J., Hursti, T., Koller, S., Mancini, F., Page, A., & Schienle, A. (2009). Confirming the three-factor structure of the Disgust Scale-Revised in eight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 234-255.
- Olatunji, B. O., & Sawchuk, C. N. (2005). Disgust: Characteristic features, social implications,

- and clinical manifest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932-962.
- Olatunji, B. O., Williams, N. L., Tolin, D. F., Abramowitz, J. S., Sawchuk, C. N., Lohr, J. M., et al. (2007). The disgust scale: Item analysis, factor structure, and suggestions for refine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19*(3), 281-297.
- Olatunji, B. O., Wolitzky-Taylor, K. B., Willems, J., Lohr, J. M., & Armstrong, T. (2009). Differential habituation of fear and disgust during exposure to threat-relevant stimuli in contamination-based OCD: An analogue stud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 118-123.
- Phillips, M. L., Senior, C., Fahy, T. & David, A. S. (1998). Disgust-the forgotten emotion of psychiatr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2*, 373-375.
- Rachman, S. (1990). *Fear and courage (2nd ed.)*. New York: Freeman.
- Rozin, P., Fallon, A., & Mandell, R. (1984). Family resemblance in attitudes to foods. *Developmental Psychology, 20*(2), 309-314.
- Rozin, P., Haidt, J., & McCauley, C. (1993). Disgust. In M. Lewis & J.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Rozin, P., Haidt, J., McCauley, C., Dunlop, L., & Ashmore, M.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gust sensitivity: Comparisons and evaluation of paper-and-pencil versus behavioral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 330-351.
- Smits, J. A. J., Telch, M. J., & Randall, P. K. (2002). An examination of the decline in fear and disgust during exposure-based treat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1243-1253.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 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Taylor, S., & Cox, B. J. (1998). An Expanded Anxiety Sensitivity Index: Evidence for a hierarchic structure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463-483.
- Woody, S. R., & Teachman, B. A. (2000). Intersection of disgust and fear: Normative and pathological view.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7*, 291-311.
- Woody, S.R., McLean, C., & Klassen, T. (2005). Disgust as a motivator of avoidance of spid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9*, 461 - 475.

원고접수일: 2008년 11월 2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9년 8월 22일

게재결정일: 2009년 9월 3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3, 549 - 561

---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Disgust Scale-Revised(K-DS-R)

Shin-Ae Lee      Ji-Hye Kim      Myoung-Ho Hyu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o a preliminary study on validity estimates of the Korean version of Disgust Scale(DS). Participants were 229 undergraduate students. The measures include the K-DS, ASI, STAI-S/T, OCI-R. The result show that the DS-R has high internal consistency(Cronbach  $\alpha=.86$ ).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avored the 3-factor structure of the K-DS-R in this sample similarly the original DS(Olatunji et al., 2008). Study results also suggested that the K-DS-R was a reliable instrument. In addition, various estimates of validity of the K-DS-R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measures of anxiety, symptoms of OCD and anxiety disorders. This study discussed potential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ncept of disgust elicitors, the utility of the K-DS-R, and study limitations.

*Keywords: Disgust, Disgust Sensitivity, validity, preliminary study.*